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꿈 꾸기 전의 마음, 꿈 속의 마음

꿈꿀 때 꿈꾸는 줄 아는 것이 진짜 공부다

일전에 내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길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문제는 어디다 두는 거냐 하는 건데, 이 불법은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사문제를 해결해, 누리의 지도리를 우리가 걷어잡아. 이것인데 그리 하는데는 공부하는 내 입장으로 봐서 어떠한 경계에 닿는 것이 이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내가 말씀을 오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철야하는 분들에게 얘길 했습니다. 얘길 했는데 인자 진짜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참말로 공부를 진짜로 하는 것, 풍류가 아니고 재미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진짜로 공부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행을 가져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을 지켜. 이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공부하는 거냐. 두말할 것 없이 꿈꿀 때 꿈꾸는 줄 아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왜 그러느냐. 평상시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을 좋아한다든지 남을 그리워한다든지 그 마음이 철두철미하면 꿈에도 나타나니까.

미워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뭘 해야 되겠다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지 좌우간 어떻게든 뭣이라도 좋아. 공부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중생계에서 마음을 굴리는 것에 대해서 간곡해. 남을 미워해도 굉장히 미워해. 저 놈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아. 그것도 굉장히 지독한 마음이기도. 지독한 마음이 있으면 말이죠 꼭 꿈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상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던 말이지. 참말로 마음에 깊이 걸려. 그러면 밤에 잘 때 뭣말하는 거냐 마찬가지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할테면 이 눈 귀 코 혀 몸 뜻, 이 여섯 가지, 육근을 통해서 경계하고 닿질려. 닿질리는데 육근을 통해서 마음을 쓰는 거와 또 우리가 잘 때 꿈꾸는 것은 육근을 통하지 안 해. 잠때의식이라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통하지 않아서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알음알이라고 해도 좋아요. 뭣이라고 해도 좋아요. 본바탕 진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 저 말 하는 것 다 아시는 거니까 말할 것 없고, 그 잠잘 때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 이걸 통하지 않고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영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 그렇다 하고 길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다르냐 말이지. 다르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다르다 말이지.

평상시에는 모든 경계로 더불어서 타협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해서 딱딱 맞아 들어가. 울 때 울고, 성낼 때 성내고, 웃을 때 웃고 이래. 그런데 그 육근을 통해서만의 사고방식이거든. 거기서 결정이 돼. 그런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전혀 육근을 통하

”

내면적 멋이란

환희심에서 생겨난다.

스스로 기쁨을 느낄 때

나와 남과의 분별 사라지고

천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며

영원한 참삼의 환희에 젖게 된다.

여기에 무한성과 영원성이 있다.

”

지 않아. 눈도 통하지 않고 귀도 통하지 않고 입도 통하지 않아. 그런데 남하고 얘기도 해. 보기도 해. 듣기도 해. 왜 그러느냐. 그렇다면 한마디로써 여러분이 아실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낮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결국 육근의 높음높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 말을 하나 하면은 딱 숨 거둘 때를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딱 거두어버려. 말하자면 죽어. 그때는 평상시에 육근을 통해서 하던 생각이 전혀 안 나. 그것도 간곡하고 깊은 것은 있기도 있었지요. 있기도 있었지만 전혀 잊어버려.

거기서 알음알이가 자기의 습성에 따라서 그래서 굴러져. 이걸 생각한다면은 말이지 참 겁납니다. 어느 정도 공부 가 됐다 싶어. 그대로 행도 해. 그런데 꿈

을 꿰 보면 말이지 전연 공부할 때의 그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 어찌 하겠냐? 죽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꿈꾸는 것 한가지입니다. 꿈을 꿀 때에는 내가 꿈을 꾸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대로 죽 하게 내 마음을 굴러 나가. 아무 걱정 없어. 잠 안 잘 때의 마음 씩씩이나 잠 잘 때의 씩씩이나 한가지라. 한 가지지 아니까 우리가 육근을 버려. 우리가 숨을 거두어 버렸어. 죽었어. 그러면 숨을 거둔 다음의 마음 씩씩이 꼭 한 가지 일 것이 아니겠어요?

한 가지겠는데 이 공부가 철저히 못 돼. 못돼 놓으면 이 육근이 있을 때는 모든 걸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도 하고 분별도 하고 그래 가면서 자기가 거 하는데, 아 그만 딱 하게 숨을 거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럴 때는 영 모르게 되거든. 이것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느냐. 꿈속에 꿈꾸는 줄을 알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꿈속에 꿈꾸는 줄 알면은 꿈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하니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육근을 갖다가 믿어.

나중에 말이지 꿈을 꿀 때 그만 잊어버려. 잠을 잘 때도 잊어버리고 숨을 거두어도, 잠잘 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더라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있어. 우리가 깨어 있어. 이 때 보고 듣고 하는 데 지나치게 차우쳐. 지나치게 치우치기 때문에 말이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어제 내 이 이야기했습니다. 철야하는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꿈속에 꿈꾸는 줄 모르려면 대처 안이 없겠느냐. 대로 무슨 방편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방편은 방편을 빌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대로 어떠한 것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육근을 버려. 이 몸을 버려. 숨을 거두어. 거둘 때의 그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여일해. 꿈을 꿀 때도 여일해. 이렇게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공부를 집어치워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요 대처법이 원을 세우는 겁니다. 원을 세워. 원을 세워드 참 지독하게 원을 세우는 겁니다. 간절하게 원을 세우는 거예요. <끝>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茶와禪



한 잔 차로 한량없는 즐거움을

1-2 대저 선이라 무엇인가?

차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주변 즉 살림살이하는 데 있고, 이것이 선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곧 선의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의선사 같은 이는 '무시선무처선(無時禪無處禪)'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요, 완당 선생은 "정좌처차반향초(靜坐處茶半香初)"라고도 하고 "묘용시수유화개(妙用時水流花開)"라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지경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

또 한편 차는 일상 우리 인간이 하면서부터 물기를 먹고 마시며 살아온 인간의 본능적인 식생활과 계절 따라 입어야 하는 입성생활, 그리고 집을 지어 거처하며 그 주택의 주변인 정원을 꾸며 꾸려나가는 생활의 영위를 하는 데 있어, 그 어느 것이나 살림살이 않고는 못 배기는 현실에서 크게 착안한 것임을 볼 때 차도의 너그로 너른 광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선은 그 자체가 현실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광범하게 말하는 한편 너무 범박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방면을 치중하여 가는 선객들이 구두선(口頭禪) 또는 야호선(野狐禪)에 떨어져 한 것 공상에 빠져 헤어 나오기 어려운 것을 때로는 보게 된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선이 조주선사나 초의차성의 편에서 서서 그 실다운 힘과 생생한 화로가 열렸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차로 가는 길에 선의 길이 있다 할 것이다.

茶와 禪

차생활은 '맛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지만 차생활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인간의 기호(嗜好)나 취미에 있고, 이 취미나 기호는 바로 무한한 맛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의(草衣)는 잘 끓은 물의 건령(健靈)과 차의 신기(神氣)가 용하게 어울리어 우러난 차로 '신령(神靈)스럽다'고 하고, 또 음차(飲茶)에 있어서도 간 맞는 좋은 차를 혼자서 마실 때가 가장 좋다고 하여 '신(神)'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신령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한절묘(無限絕妙)함을 말하고, 혼자서 차를 마시는 것을 '신'이라 한 것은 신령스런 차를 마시는 차인(茶人) 자신이 영

원하고 무한한 천지 대자연과 통하고 삼매경(三昧境)의 법희선열에 젖을 수 있는 신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할 때가 바로 내면적인 맛의 극치에 이른 지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귀신'이나 전지전능한 신으로 표현되는 따위의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내면적인 맛이란 참된 각성의 커다란 환희의 생활에 있으니, 이것은 '신난다'라는 우리말이 그 본뜻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천지난만하고 원기에 넘치는 아이들은 "어! 신난다"라고 소리친다. 이 말에

으로 이어져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계급적인 것, 모두를 포괄한 사방세계(十方世界)에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른들이야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때를 당할 때 아이들처럼 '신난다'고 소리치지는 않는다고 해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멋있다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를 통해 우리의 선인들은 신나는 인생 멋진 삶을 누리려 했던 것이니, 함허 득통 선사(涵虛得通禪師, 1376~1433)는

마땅히 이 한잔 차로 한 번 맛보고 한맛에 한량없는 즐거움을 내어아하네
(常用一椀茶—當一當應生無量樂)

라고 읊었던 것이다.

참다운 맛의 생활은 결코 사유(私有)가 아니며 혼자서 맛도 대중(大眾)의 것이 되고 요사나 잔 쉼새나 흥내나 조각으로는 체득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제 구색, 제 장단, 제 가락이 아니면 이는 '설맛'에 흐르고 마는 것이니 '맹탕(萌湯)'이나 '열간이'가 되고 말뿐이다.

맛은 대중의 것이기 결코 사유의 자리 가 아니며 차의 생활, 맛의 생활은 전 사회인이 공동으로 성취하여야 될 공동의 광장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취미생활, 즉 맛을 지향하는 생활은 아무래도 정서적인 방면에서 이야기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정서적인 감각이 진리성의 진(眞)과 심미(審美)의 지경인 아름다움의 세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지적인 추구나 의지적인 행동은 계산적인 타산과 아울러 생활에 피로를 가져다주기 쉬운 반면, 정서적인 취미의 생활이야말로 아무리 복잡한 생활과 어려운 지경에 부딪힌다고 해도 그것을 잘 조절하고 무마해서 도무지 싫은 생각이라고는 없는 크나 큰 환희의 신나는 생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끝>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인축사 刊) 중 제 1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둬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동부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제8, 오세제자수기품(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속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6, 여래수랑품(21:15)	제23, 악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24, 묘용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견보탑품(22:19)	제18, 수화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악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정엄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인력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